

## 특 집

# 천태종 신도 교적 관리

한기선 / 천태종보사 편집부장

우리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종교가 다양하면서도 종교전쟁을 치르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종교간의 갈등이 없으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종교인들의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 없이는 종교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종교간의 갈등이 점차 커지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본다. 이는 상대종교를 인정할 줄 모르는 배타적인 종교관에서 기인되고 있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며, 자신 이외의 여타 종교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상대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간의 갈등은 자신의 종교를 믿는 신도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불교가 신도 수에서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같은 다른 종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신도들도 굳이 불교를 믿는다는 것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극성스러운 정도의 전도를 통해 많은 신자들을 확보한 기독교는 점점 불교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종교간의 신도확보 경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각 종교집단에서 발표하는 신도 수의 합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넘어서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에서 발표한 종교인구의 조사 결과는 아직 불교신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도들의 조직과 결속력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도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존의 신도들을 어떻게 조직하여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느냐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신도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종교와 불교계의 종단들이 실행하고 있는 신도관리 방법은 새로운 신도 관리 방안을 기안하는데 참조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교계내에서 신도조직이 가장 잘 되어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천태종의 신도관리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천태종의 신도조직

천태종의 신도조직은 종헌 제17조 <신도의 자격 및 의무와 종법(신도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종헌에 의하면 '본종의 신도는 종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본종의 종지를 신봉준행(信奉遵行)하는 자 중에서 본종 소속 각 사찰 포교소의 신도 신적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본종의 신도는 매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聖義金을 헌납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헌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신도회법」 제2조에는 '본 종단은 전국신도를 회원으로 한 신도회를 조직하여 대한불교 천태종 신도회라 칭한다.' '본회는 각 지방에 지부·지회·분회를 두어 각 소속신도를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헌 중법은 여타 종단의 신도와 신도회에 대한 규정과 대동소이하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천태종 총무원에서 공식 발표하고 있는 신도수는 1백67만명이다. 이 숫자는 총무원에 등록된 신도가 아니라 말사에 등록된 모든 신도를 합한 수이다. 천태종의 신도는 모두가 같은 신도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총본산 구인사에 등록된 신도와 말사에만 등록된 신도가 구별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총본산 구인사에 등록된 신도만이 천태종 신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구별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천태종의 신도가 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총본산 구인사에 가서 입교법회에 참석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말사 법회에 나가는 신도가 되는 방법과 각 지역 말사에 다니면서 구인사 입교법회에 참석하여 신도가 되는 방법이다. 처음 구인사의 신도로 입교하는 방법에서 우선 전국의 신도들이 구인사라는 총본산을 매개체로 한 종단의 신도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총본산 구인사의 입교법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태종의 신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입교법회는 구인사에 가서 4박 5일 기도를 등록하고 기도 중인 사람만이 참석하는 법회로 3일에 한 번씩 행해지고 있다. 구인사에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은 구인사에 도착하자마자 접수실에 이름을 올리고 기도하러 왔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명찰을 달게 되어 있다. 이는 그냥 단순히 구인사를 관광차 왔거나 잠시 들렀다가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보

아야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총무원에서는 방송을 통해 처음 구인사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모이도록하여 입교법회를 갖는다. 입교법회에서는 스님의 설법과 천태종도로서의 신앙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게 된다.

그리고 천태종의 신도로서 신도카드를 작성할 것 인지를 묻고, 신도카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람만이 천태종의 신도로 입교하게 되는 것이다. 구인사로 입교한 신도들에게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말사를 안내해주고 그 지역에 가서 신도휴대카드(회원증:참고자료 참조)를 발부 받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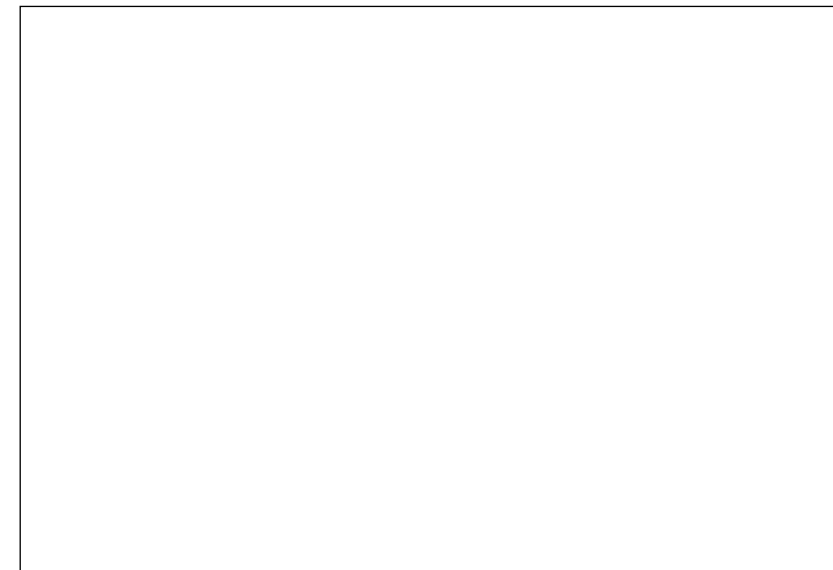
반면에 각 지역 말사를 통해 입교하신 분들은 법회에 참석토록하고 각 지역에서 신행안내와 신도휴대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본산의 4박5일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된다.

그러면 본산 입교법회에 참여한 신도와 그렇지 않은 신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다. 단지 본산 입교법회를 거쳐야만 신도로서 인정을 받고 신도회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것이 있다. 신앙생활에 별 차이가 없으면서도 이러한 구별을 하는 것은 모든 천태종 신도는 구인사와 인연을 맺어야만 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구인사를 통하지 않고는 같은 종도라는 동질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천태종 신도는 구인사와 인연을 맺었다고 보면 된다. 천태종의 신도들에게 어느 절을 다니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인사 신도임을 먼저 말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지역 말사는 단지 구인사가 멀어서 자주 못가니까 그 대신에 나가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천태종의 강력한 응집력은 바로 총본산 구인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천태종의 신도들은 구인사를 고향처럼 생각한다. 천태종 신도라면 일년에 한두번은 누구나 구인사를

방문하고, 구인사에서 기도를 한다. 말사에서든 매주 법회를 하고 신도회 나름대로 많은 행사를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구인사 총무원의 재가를 얻어 치르고 있다는 점이 여타 종단과는 다른 점이다. 신도들의 신적부 관리도 총무원에서 총괄하고 있다. 말사에서의 신적부와 신도회원증 관리는 총무원의 일을 대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천태종 총본산인 충북 단양 구인사 전경

이 때문에 모든 신도관리는 총무원과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보고와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 신도회에서 신도들이 반드시 내야하는 회비(월 2천원, 1년 2만4천원, 1년 단위로 정산함. 년회비를 완납해야 천태종단 차원에서 제작 배포하는 <천태종 달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도는 회비를 거의 내고 있다함 - 편집자 주)를 거둬 매월 이를 결산해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신도들은 회원증에 표시된 회비 납부를 마쳐야만 신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신도 관리는 종단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천태종은 종정 큰스님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천태종의 末寺 수는 170여개이며, 말사의 행사 날짜도 중앙에 보고하여 택일

을 받아야 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편집자 주)를 구축하고 있다.

종단의 스님들도 모두 종정 큰스님의 상좌가 되는 일불상좌를 지향하고 있고, 신도들 또한 종정 큰스님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종정 큰스님이 주석하시는 총본산 구인사를 정신적 귀의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말사는 신도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고 주지는 단지 책임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천태종만의 강점 가운데 하나다. 천태종의 교세에 비하여 성직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거대한 종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신도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 천태종 교적 관리 체계

천태종에서 행하고 있는 신도등록 체계는 천태종의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님 재세시에 그 기틀이 마련되었다. 총본산 구인사와 종정큰스님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와 신도들의 적극적인 역할 등이 이때 체계를 잡았다. 그리고 구인사에 다니는 신도들이 각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 하나둘씩 회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신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를 관리하는데도 많은 일손이 따르게 되었다.

신도들의 교적 관리는 총본산 구인사 총무원의 부서 가운데 하나인 교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교무부는

입교법회를 담당하고 신도카드를 관리한다. 그러나 신도카드의 관리는 생각만큼 손쉽게 않은 듯하다. 카드로 보관한다는 것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 각 부서는 역할 분담에 따라 일정 부분의 신도들을 관리하고 있다. 총무부는 각 지역의 신도회 간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교무부는 구인사 안거에 참석한 신도들의 명단, 교육부는 금강불교대 학생들의 명단을 관리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담이 전체적인 신도관리를 어렵게 하는 면도 있지만 아직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다. 어떻게 이러한 신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구인사에 컴퓨터가 도입된 것은 5년전의 일이다. 이때부터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의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부신도들이나 안거에 참여한 신도들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무부가 전체적인 신도관리를 위해 컴퓨터에 신도를 입력하기 시작한 것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아직도 체계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교무부는 현재 신도들의 입력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과거의 신도들을 입력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새로 입교하는 신도들을 처리하는데도 힘이 딸리는 실정이다. 그만큼 새로 천태종에 입교하는 신도들이 많다는 말이 된다. 작년 봄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이 컴퓨터에 입력한 입교 신도는 2만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신도카드를 모두 입력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과거의 신도카드는 그대로 관리 보관하면서 새로운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컴퓨터 신도관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신도관리의 애로점**

어떤 종교단체든 신도조직을 운용하기 위한 신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신도관리를 위한 거의 비슷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신도관리가 잘되는 곳과 잘 안되는 곳이 있다. 이는 제도의 중요성보다는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제도만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무엇하는가. 신도들이 신도조직에 몸담으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없다면 신도관리는 아무 쓸모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도관리에 앞서 신도들에게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하고 같은 도반으로서의 동질성을 갖도록 해줘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천태종이 갖추고 있는 중앙집권적 총본산 체제는 신도들을 결집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천태종으로서도 신도관리는 거대한 공룡처럼 손대기 어려운 점을 갖고 있지만 원천적인 제도의 틀 속에 신도들을 하나로 묶고 단합시키는 응집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도관리를 전산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총무원 각 부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한 신도들의 명단이 주무부서로 일원화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말사들과 구인사를 컴퓨터로 연결하는 온라인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명실상부한 신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리라 생각된다.

신도관리를 위해 일찍이 전산화를 시작한 천태종으로서도 아직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신도관리는 전담부서를 두어 전문화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신도관리도 그 일 가운데 하나로서만 인식한다면 철저한 신도관리를 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신도관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관리란 신도를 제도의 틀 속에 가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속

에서 신앙생활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와 신도아닌 사람의 구별이 엄연해야 한다. 신도로서의 의무가 주어지는 만큼 권리 또한 그에 상응한 만큼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신도조직이 자체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이 동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훌륭한 신도 관리의 틀을 갖추고 운영의 묘를 극대화 시키면되는 일이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서 문제이다.

**법회와실법**

**회 원 수 첩**

---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소백산 구인사)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지리 132-1  
 ☎423-7100~8

No \_\_\_\_\_

주소: \_\_\_\_\_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위 사람은 본 종단의 신도임을  
인증함.

불기 25 년 월 일

**대한 불교 천태종종정**



특 집

# 진각종 신도 교적 관리

김태형 / 법보신문사 기자

## 진각종의 역사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불교사상을 말한다면 단연코 '禪 사상'이 으뜸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불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가장 유행한 불교사상은 여러 가지 역사기록을 고려해 볼 때 '密敎'라고 말할 수 있다. 밀교는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밀교의 護國의 전통은 고려로 이어왔지만 조선에 들어와서 抑佛정책으로 그 법맥이 끊기고 말았다. 밀교는 한반도 전래 초기부터 왕족 등 사회 지배계층은 물론 서민대중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조선의 억불정책으로 한국불교 제 종파가 하나로 통합되는 불운을 당하면서도 밀교는 불교의 각종 의식과 행사 등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다. 현재 각종 법회나 기도 등에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의 하나인 千手經은 대표적인 밀교의식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몰락과 일제의 침략, 그리고 해방으로 이어지는 근현대사의 과정에서 한국불교의 많은 선각자들은 단절된 제 종파의 법맥을 잇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 가운데 밀교종파의 법맥을 새로이 잇기 위해 창종된 종단 중 하나가 바로 '眞覺宗'이다.

## 진각종이란

진각종은 1947년 6월 회당 손규상 대종사에 의해 창종된 밀교재가종단으로 '법신 비로자나불'을 教主로 하며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소의경전은 금강정경, 대일경, 대승장엄보왕경, 종조법전 등 밀교 경전을 소의경론으로 삼고 있다. 또한 진각종은 '밀교중흥, 생활불교, 현세정화, 심인구현'이라는 開宗理念을 가지고 있다.

진각종은 일반적으로 승가와 재가로 구분되는 한국불교의 제 종단과는 달리 재가종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統理院은 여타 종단의 총무원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부르는 사찰은 心印堂(심인당)이라 한다.

심인당에는 일반 사찰과는 달리 佛像을 모시지 않고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육자대명왕진언)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수행자에 대한 명칭은 여타의 종단과는 달리 남자 수행자는 正師, 여자수행자는 傳授(전수)라고 부르며, 이를 총칭하여 '스승'이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신도들을 호칭할 때 '○○보살', '○○거사', '○○불자'로 부르지만 진각종에서는 남자신도는 '覺子(각자)', 여자신도는 '菩薩(보살)'이라 하며 '신도'는 '信敎徒(신교도)'라 한다.

## 진각종의 신교도 입교 절차

진각종의 신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타의 종단이나 사찰과는 다른 입교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절에 해당하는 심인당에 찾아가 입교의사를 밝히고 主敎(주교 : 일반 사찰의 주지에 해당)의 추천을 받아 입교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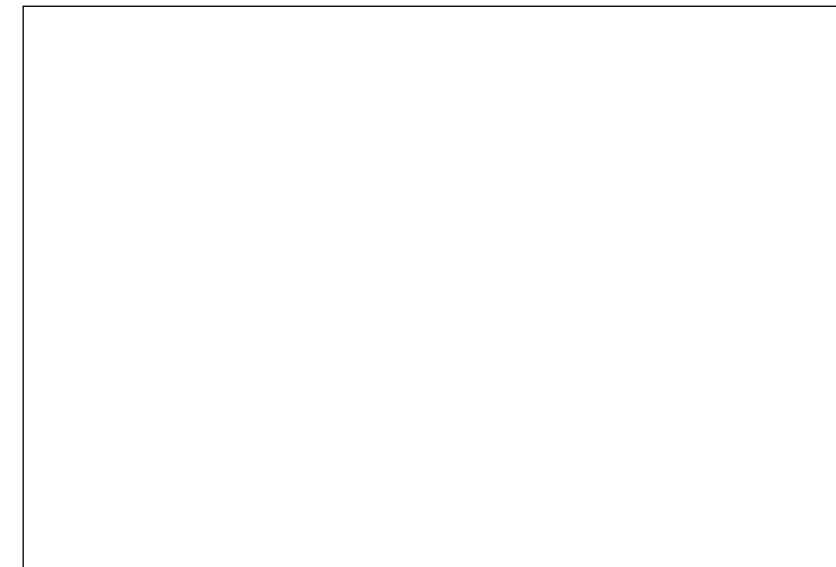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한 종단 혹은 사찰의 신도가 되는 것

중앙 통리원에 새로운 신교도의 명단과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며, 통리원은 이들 신교도에게 佛名을 지어 준다.

종단 차원에서 발행하는 신도증이나 신도수첩은 따로 없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수계증서와 교적부가 그 기능을 대체한다.

## 신교도의 신행과 조직

진각종에는 일반 사찰의 신도회에 해당하는 신교도들의 모임인 金剛會(금강회)가 구성되어 있다. 금강회는 심인당별로의무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금강회는 남자 신도들의 모임인 '각자회'와 여자불자들의 모임인 '보살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강회는 전국조직인 '총금강회'의 지회로 그 위상을 갖는다. 종단 차원에서 교도의 의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진각종 총본산의 심인당

로 납부하는 교무금은 따로 없고, 다만 심인당별로 금강회 會費를 월 2~3천원 정도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여 신도 신행활동의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재정은 다시 총금강회에 심인당별로 月 1~2만원씩 납부하며 이것은 총금강회 재정으로 적립한다.

진각종도는 불공을 통해 일상의 수행과 법회를 실시한다. 불공에는 매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自性日(자성일)불공'과 매월 첫주 월요일부터 7일간 실시하는 '월초불공', 매년 1월 첫째주 1주일간 실시하는 '새해대서원불공'과 새해대서원불공이 끝나고 1주간부터의 '새해 49일 불공' 등이 있다. 이러한 불공에는 '講度發願(강도발원)'이라는 의식이 있어 불공

은 입교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만 진각종은 입교 의사를 밝힌 후 매월 첫주 월요일부터 7일간 실시하는 月初 불공과 자성일 불사(여기에서 佛供과 佛事라 함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祭禮(제례)의식이 아닌 법회나 수행을 말한다)에 참석하여 진각종도로서의 자질을 교육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신교도는 해당 심인당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 매년 1회(11월경 실시) 敎區별로 실시되는 受戒灌頂佛事(수계관정불사 : 수계식, 일반적으로 수계식에서는 燃肥(연비)를 하지만 수계관정불사에서는 淨水를 정수리에 뿌려준다)를 통해 정식으로 진각종도가 된다. 이때 해당지역 심인당 교주는

에 임하는 구체적인 서원을 표현한다.

이와 함께 喜捨(희사)라는 제도가 있어 삼보에 공양을 올리게 된다. 이 회사에는 三種施(삼종시)와 절량회사가 있다.

3종시에는 단시와 경시, 제시가 있다. 檀施(단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질의 除毒(제독)과 복지증장이라는 종교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액의 10분의 1을 희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無相檀施(무상단시)와 定施(정시), 差施(차시)가 있다.

경시(經施)는 경전 출간 등 흔히 법보시 때 하는 회사이며, 濟施(제시)는 스승들의 공양을 위해 회사하는 것으로 모두 별도의 書式(서식)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節量(절량)회사는 매끼니 식사를 지을 때마다 부처님과 일체 중생들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은 쌀을 회사하는 것으로 회사된 쌀은 조상천도나 입시불공 등에 사용된다.

### 맺음말

올해로 창종 50년을 맞는 진각종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포항, 경주 관구청에 소속된 1백20여개의 심인당과 교직자들의 노후복지기관인 기로원 1개소, 종단 발전에 기여한 교도들의 노후복지시설인 금강수도원 1개소가 있다.

신교도의 수는 6십여만명에 이르며 교직자는 모두 2백50여명(대한불교진흥원, 『불교총람』 1993년)에 달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4년제 종합대학인 중립 위덕대(경북 경주 소재)와 교역자 양성을 위한 4

년제 진각대학을 비롯 대구 심인중.고등학교, 서울 진선여자중.고등학교와 종단 부설의 유치원이 30여 개가 있다.

또한 사회사업으로는 밀교사상과 종조 회당사상에 기초한 청정국도가꾸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창종 50년을 맞아 제2의 창종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종단 내외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현재 문서로만 정리하고 있는 신도조직 관리의 電算化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진각종의 신도관리를 요약해 보면 심인당 ↔ 관구청 ↔ 통리원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종단 구조에서 신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 신교도로 입교하는 초심자들은 해당 심인당에서 별도의 수계예식을 치루지 않고 중앙 통리원에서 일괄적으로 수계를 실시(수계 일정은 중앙에서 관장하지만 그 실시는 중앙의 계획에 따라 해당 관구청에서 한다)하고 있는 것은 다른 종단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진각종의 이와 같은 신도관리는 창종 50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타종단에 비해 탄탄한 내부 결속력을 가지고 꾸준한 교세 신장과 발전을 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각종 의식과 기도 절차, 방법 등은 모두 단일화된 儀軌(의궤)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치러진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종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로 이 또한 진각종 교세를 자랑하면서 꾸준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법회와실법

## 특 집

# 원불교 신도 교적 관리

장연광 / 教務, 원불교 교정원 교화부 차장

어느 집단이든지 그 집단의 발전 원리와 관리체계가 있기 마련이다. 집단 유지의 원리는 그 집단을 지탱케 하는 정신적 체계이며 관리체계는 집단 구성원의 가입 - 교육(훈련) - 응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행정 체계이다.

이와 같은 집단 유지의 원리는 종교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기서는 원불교의 경우에 어떻게 교도(신자)가 입교하고, 등록을 하며, 입교자의 안내 및 교적 관리 등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기로 한다.

### 원불교에서 入敎의 의미

원불교의 입교는 입교와 동시에 부여하는 法名(법명)의 의미를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불교는 敎祖(교조) 소태산 대종사가 우주의 궁극적 실체인 일원상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모여든 40여명의 제자들과 함께 방언공사(제방쌓기)를 착수하고 흐르는 강물기를 막아 옥도로 만들었다. 이를 일러 원불교의 창립 정신이요, 개척 정신이라고 한다.

그후 교조 소태산은 信心 강한 사람 9인을 선발하여 진리 세계에 대해 결사체를 구성하게 된다. 소태산은 9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친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다. 마음이 한번 쏠—하여 조금도 私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 따라 성공하게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天意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마음에 중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고, 일자와 방위를 지정하시어 일체히 기도를 하게 하셨다.

소태산은 100일 기도를 마치고 단원들의 지극한 정성이 드디어 ‘白指血印’의 이적으로 나타남을 보시고 이렇게 설교한다.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가 이제 판결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제부터 비롯하였다.” 하시고 法號와 法名을 주시며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私私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많은 중생을 제도하라.” 원불교 교도는 이러한 소태산의 언명에 의하여 사무여한의 정신을 체득한 9인 단원과 같은 심정으로 거듭난 삶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원불교에는 진리의 이름을 부여하는 법명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 원불교의 입교 절차

원불교의 입교 절차는 3단계를 거친다.

첫 단계는 教堂에 자발적으로 찾아오거나 기성 교도가 주체가 되어 입교하고자 하는 이 가운데 그 信心이 지극한 사람을 대상으로 「입교원서」(참조)를 작성하여 입교금(청소년 5백원, 일반 1천원)과 함께 지역 교당에 제출한다. 교당에 제출된 입교원서는 교무(주지에 해당)의 확인을 받아 중앙총부(조계종의 총무원에 해당) 교회부로 발송된다.

다음 단계는 발송한 입교원서를 보고 중앙총부 법사단에서는 法名을 부여한 후 교구 → 교당으로 발송한다(「教徒證(교도증)」 참조). 교구화(教區化)가 정

착되고 있는 현재는 두번째 단계를 교구에서 처리하고 있음.

마지막 단계는 교당에 도착한 교도증을 교무가 수합하여 입교한 새 교도를 대상으로 입교식을 거행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개식
- 2) 입정
- 3) 교가
- 4) 심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 법문에 들게 된 새 교우에게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그로 하여금 영원한 세상에 信心이 길이 물러나지 아니하옵고, 공부와 사업에 길이 정진하여 필경 성불제중의 大果를 원만히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一心으로 비옵나이다.”

- 5) 교도증 수여
- 6) 교강 설명(일상 수행의 요법)
  - 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 ②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혜를 세우자.
  - ③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건마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림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자.
  - ④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써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 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 ⑥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 ⑦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 ⑧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 ⑨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 ⑥ 악한 말을 말며
- ⑦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 ⑧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 ⑨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 ⑩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8) 발원문

“오늘 법신불 四愿의 은덕으로 大道에 발심하와 거룩하온 이 회상에 들게 되었나이다. 길이 부처님의 공부와 사업에 힘쓰기로 맹세하오니, 늘 거룩하신 은혜로써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9) 득도의 노래(48장)

“어둔 길 괴로운 길 헤매이다가  
즐거이 이 法文에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 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10) 폐식

이렇게 하여 교도가 된 후에는 교도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주어진다.

**원불교 교도의 의무와 권리**

원불교 교도가 갖는 의무는 교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수행의 임무이며 이를 통하여 확실한 교도로 정착 되는 것이다.

(1) 조석 心告의 의무

교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조석심고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 조석심고는 아침 기상 후와 저녁 잠 들기 전에 일정한 신호(목탁)나, 각자의 표준에 의하여 일어서서 심고한 후, 삼세 제불제성과 삼세의 부모 조상에게 각각 합장 경례를 한다.

심고의 내용은 「경전」에 밝혀 주신 방법에 따라 각

입 교 원 서			
본인은 원불교의 교도가 되고자 입교원서를 제출합니다.			
원기    년    월    일			
성 명(한자) _____		(인)(남/여)	
(한글) _____			
법    명 _____			
원불교 교정원장 귀하			
주소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전    화	직    업		
호    주	호주와의 관    계		
출석할법회	일반. 청년. 대학생. 학생. 어린이. 기타		
관할교당	연원관할 교    당		
연원이름	연원성별		
요    망 사    항	입교원지를 붙여 주세요		

입교금은 귀하의 이름으로 교회·교육·자선사업에 쓰입니다.

자의 소망을 기원하되, 새벽에는 서원을 다짐하고 그날의 계획을 고하며, 저녁에는 하루의 죄복과 선악을 반성하고 참회한다.

(2) 법회 출석의 의무

교도는 반드시 소속 교당의 법회에 출석하여, 신앙과 수행을 계속하고 교당내왕시 주의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교도는 교당에 나아가 일원상 진리를 향한 지극한 신앙으로 깨달음을 향해 항상四恩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진하다.

(3) 보은 헌공의 의무

교도는 법신불四恩(天地,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에 보은하고 교당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헌공을 하여야 한다. 헌공은 공양을 올린다는 뜻으로 보은미(또는 보은금) 제도와 유지비 제도를 아울러 시행하고 있다.

보은미(농촌 중심)는 매 끼니마다 한 손갈의 쌀을 모아서 보은 봉공사업에 참여하자는 것이며, 유지비는 교당의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금액의 비용을 자기의 처지에 맞도록 정기적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4) 입교 연원의 의무

교도는 아홉 사람 이상을 입교시킬 의무가 있다. 교도는 누구나 이 회상에 참여한 은혜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교당으로 인도하고, 모두가 함께 제도를 받고 은혜와 기쁨을 누릴 때까지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원불교 교도는 이상의 의무만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도가 해야 할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바 그것을 크게 나누어 다음의 두 가지 조항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 1) 선거와 피선거의 권리가 있다.
- 2) 教政 參與의 권리가 있다.

원불교의 교도 관리

누구나 이러한 입교식을 거쳐 원불교의 교도가 된다. 그리고 나면 교무는 ①새 교도를 「교도원명부」에 등재하고 ②「교도개인카드」를 작성하여 교도의 대열에 함께 하도록 한다. ③그후 <단>을 편성하게 된다. 단은 십인 1단 체제이며 단장은 하늘, 중앙은 땅 그리고 단원 8명은 팔방위를 의미한다. ④ 단원이 된 새 교도는 단에 소속하여 교도로서 활동하게 된다.

요즘에는 교도의 행정적 관리체계로서 모든 교도의 관리를 전산화하여 처리하고 있다. 즉 중앙총부의 전산실에서는 전 교도의 인적사항을 상세히 입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12교구와 지역 교당까지 연결되어 있다.

원불교 교도관리의 양태는 다양하다. 교화단을 통한 10인 1단체는 교화 현장에서 단장과 중앙 중심으로 교화의 확산을 가져오는 체계이며 이러한 체계는 교당 내에서 중심이 되어 밖을 향해 교화의 주체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또 하나는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는 바 즉 중앙총부 교화부에서는 교도의 신심과 정신성을 중심으로 공부 성적을 등급화하고, 총무부에서는 사업성적을 중심으로 등급화하고 이를 종합하여 元成積(원성적)을 낸 후 특등 유공인과 1등급부터 5등급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거진출진 대호법, 1좌위부터 5좌위의 유공인으로 등급을 정하여 영원한 원불교의 조상으로 받들고 일년에 2회(6. 1 / 12. 1)에 걸쳐 향례를 올리게 된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원불교 교도 관리 체계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만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나타난 원불교 교도관리의 특징은,

첫째, 원불교교도는 소태산 대종사의 우주의 진리 각득을 기점으로 9인 제자들과 함께 체현한 사무여한의 정신이 입교하는 자의 법명과 심신에 어리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원불교 교도는 하늘과 땅 뿐 아니라 8방의 책임적 위치에서 일원상 진리를 신앙 수행하는 신자로서 긍지를 갖도록 하고 있다.

셋째, 원불교 교도는 지역 교당의 교도로서 교구와 중앙 총부에 연결해서 각종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도록 민주화된 방향에서 활동하고 있다.

넷째, 원불교교도의 관리 체계는 전산화되고 있으며, 교도증 발급은 수작업 단계에서 자동화된 컴퓨터화 단계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교도증의 데이터 카드화를 준비 중에 있다.

다섯째, 교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교도의 단계별 훈련을 정착시켜 가고 있다. 이러한 훈련은 신앙 수행의 체질화, 생활화, 대중화로 나아가는 훈련이며, 교도뿐 아니라 타종교인이나, 일반인들도 매우 의미있게 참여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특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생각보아야 할 점을 이야기한다면, 원불교 교도 입교

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여 입교식 현장에서 교도된 자는 새로운 진리적 탄생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원불교 교도는 생활 근거지의 가까운 교당에 참여하여 교당과 교도와 사회가 밀도 있게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교도 관리와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끝으로 원불교는 영육쌍전, 이사병행, 내외의 겸전정신에 바탕하여 정신성과 사업성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교회현장, 사업현장, 훈련현장, 봉공현장 그리고 정치, 문화, 재계, 학계 등에 참여한 교도들이 다양한 양태로 교도의 특성화가 이루어져 미래 사회 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원불교는 전북 익산에 있는 중앙총부를 중심으로 12개 교구(전남광주, 서울, 부산,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500여개 교당, 300여개 기관(교육, 훈련, 복지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도의 총수는 교역자(교무) 2천여명에 신도 1백만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집자주>

법회와설법

## 특 집

## 천주교 신도 교적 관리

리길재 / 카톨릭신문사

가톨릭 교회는 제도권 교회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그래서 세간에는 제도권 교회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이라고 구별짓기도 한다. 그러나 전세계 모든 가톨릭 교회가 로마 중심인 것만은 아니다. 신앙과 윤리에 대한 사도좌(교황)의 최종적 선언을 따르지만 기타 사목에 관한 것은 지역교회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토착화와 자치권을 권장하고 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이 정신에 따라 한국 사회의 실정에 맞는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국 천주교 지역교회법인(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와 「교적(教籍)」을 들 수 있다.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교황청의 인준(95.1.23)을 받고 1995년 4월16일 예수 부활 대축일에 공포하여 같은 해 6월 4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시행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는 특별법이 일반법 보다 우선하듯 세계 보편 교회법 보다 한국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특별법이다.

1984년부터 한국천주교주 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정진석주교)가 편찬작업을 착수, 근 10여년 만에 완성한 이 특별법은 「세계 보편 교회법」과 「2백주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목의안」, 「한국 민법」을

기초해 만들어졌다.

총 2백56개조의 한국 지역 교회법전인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성직자들이 혼인문제와 같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 예외적인 소송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회법」이 준용하는 한국 국법, 특히 民法을 발췌, 사목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국 지역 교회법전은 아울러 한국 교회내 모든 행정적 서류와 각종 서식, 기록 등에 관한 지침도 제시해 주고 있다.

## 교적(教籍)

교적은 유럽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천주교회의 고유한 제도이다. 교적은 한마디로 “각 본당(교구내에 상설적으로 설정돼 있는 신자공동체로 주임신부가 고유한 목자로서 사목하는 관할 지역을 일컫는 말 - 불교의 사찰에 해당함)에서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는 본당 및 소속 공소의 신자 가족 명부”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1887년에 간행된 「한국 교회 관습법」에서이다. 한국 교회 관습법 내용을 보면 신부는 매년 봄, 가을 두번 공소(본당 관할권에서 신부가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며 사목하는 지역 - 불교의 포교당(?)에 해당)를 방문, 성사를 집행해야 하

고 그중 가을 방문은 의무적이다. 신부는 공소에 도착하면 즉시 복사하여두 기록부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첫째, 모든 신자 가족 명부 - 이 기록은 교회를 해야 하는 7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해야 하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 등 위계 질서를 따라야 하고, 본명, 속명, 연령, 경문과 교리 지식, 또한 견진이나 혼배를 받았으면 그것까지 기록해야 한다.

둘째, 공소 신자 현황 - 지난 1년간의 출생과 사망자 수, 부재자·냉담자, 예비자, 外人 자녀, 임종 대세자, 대인 임종 대세자 및 그 생사 여부 등을 기록해서 하나는 본당 신부에게 바치고 하나는 공소에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제도는 그후 공소 회장이 작성하고 또 신부 도착 전에 미리 작성해 놓아야 하는 등 약간의 보완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현재 교적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총무원격에 해당)에서 작성한 양식이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사용되고 있는 교적과 교적대장은 총 6종류가 있다. △세례받은 본당의 본당교적 △전출교적 △새교적작성대장 △전입교적대장 △전출교적대장 △냉담자 및 행불자 교적대장 등이다.

교적 처리의 원칙은 총 6개 항목으로 전입, 전출 교적은 전입 대장, 전출 대장에 처리한 다음 해당 교적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세례 후 또는 재작성 교적을 위한 새 교적 작성시 새 교적 작성 대장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 주소는 전출 전까지 현재 본당내 주소를 연필로 적고, 전출입시는 주임 사제의 확인 처리가 반드시 있는 후 교적을 정리한다. 분가와 합적(合籍)시는 분가 및 합적 기재와 분가, 합적 전출 처리를 해야 하고, 모든 교적 대장 번호는 연도별로 일련 번호를 기재한다. 아울러 냉담자와 행불자의 경우 3년에서 5년, 10년 이상씩 해당자 교적을 따로 분류,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교적 기재사항으로는 주소, 연락처 및 입적 근거,

가족관계, 세례, 견진, 혼인성사 일치, 판공성사 유무 등이 있으며 뒷면에는 교무금 월정액 및 실적 기재란과 본당 신부의 가정방문 확인 기록란, 가족 사진 및 거주지 약도 등을 적도록 한다.

### 성사(聖事)대장 및 성사 증명서

성사대장(聖事臺帳)은 모두 12종이 있다. 성사대장 종류를 분류하면 △세례대장 △재작성 세례대장 △견진대장 △혼인대장 △서품대장 △교구청 제출용 세례대장 △교구청 제출용 재작성 세례대장 △교구청 제출용 견진대장 △교구청 제출용 혼인대장 △병자성사 대장 △대세자 대장 △망인대장 등이다.

또한 성사 유무를 확인, 발급해주는 성사 증명서는 총 8종이 있다. 분류하면 △세례 증명서 △재작성 세례 증명서 △견진 증명서 △혼인 증명서 △라틴어, 영문 세례 증명서 △라틴어, 영문 견진 증명서 △라틴어, 영문 혼인 증명서 △라틴어, 영문 신자생활 증명서 등이다.

「교회법」 제877조와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65조는 “세례가 집행된 장소의 사목구 주임은 세례 사실을 지체없이 세례대장과 교적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목 지침서〉 제65조 2항은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확실하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불확실하면 영세자의 이름만을 기록”하도록 하고,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친부모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도록 했다(3항).

세례대장을 기록할 시 본당 주임신부는 집전자와 부모, 대부모 그리고 증인 및 세례 수여의 장소와 날짜, 생일과 출생지를 명시해야 하고, 세례 집행 장소에 본당 주임신부가 입회하지 않았을 경우, 세례 집전자는 본당 신부에게 반드시 통지 세례대장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례자가 혼인시 혼인을 거행한 본당의 주임신부

는 세례받은 본당 주임신부에게 이를 통보, 혼인 사실이 세례대장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례대장에는 또한 혼인 관계의 모든 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일례로 △혼인 거행 △혼인의 무효선언 △혼인의 해소 △무효한 혼인의 유효화 등이 기록된다.

견진성사를 비롯한 기타 성사의 기록도 마찬가지로이다. 혼인대장의 경우는 혼인 당사자 양편의 이름과 주례자 이름, 두 증인의 이름, 혼인 거행 장소와 날짜가 기입되고, 정상적 혼례에 대한 기록 책임자는 혼인 거행 장소의 본당 주임신부가 된다.

### 각종 통지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성사대장과 성사 증명서, 교적 이외에도 8종의 각종 통지서 서식을 통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통지서는 「견진 통지서」, 「교구청 제출용 견지 통지서」, 「혼인 통지서」, 「서품 통지서」, 「수도 종신서원 통지서」, 「수도 종신서원 해제 통지서」, 「입양 통지서」, 「사망 추정 신고 통지서」 등이다.

### 교회 문서 및 각 대장 관리

교적(教籍)은 일반적으로 호적(戶籍)으로 이해하면 가장 쉽다. 따라서 교적(教籍)은 신자 각 개인이 천주교에 입문해 세례받은 본당에서 기록, 보관, 관리된다. 교적은 원장(原帳)이기 때문에 신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해도 세례받은 본당에서 그대로 보관한다. 다만 「전출 교적(轉出教籍)에 새로 기입, 이전한 신자의 거주지 본당에 우송하고 또한 새로 이전한 신자의 거주지 본당에서는 「전출 교적」을 우송 받은 후 「전입 대장(轉入臺帳)에 기입한 후, 「전입 교적(轉入教籍)을 작성, 「본·교적」을 따로 한부 작성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전출교적을 보내는 본당에

서는 「본교적(本教籍)」을 본당 전출 교적철에 보관하고, 녹색으로 된 「전출 교적」을 가는 곳 본당으로 우송하도록 돼 있다.

「전출 교적」은 본당 주임신부가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것이 있나 확인, 결재한 후 발송하고, 판공성사 실적은 전출시로 부터 지난 3년 동안의 실적을 기재한다.

전출 교적 비교란에는 개인별 신앙상태와 신앙 즉 직업, 신분, 냉담, 혼인, 장애, 신심활동, 분가(分家) 등의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고, 교무금(천주교에서는 십일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삼십일조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신자가 신부와 연말에 상담하면서 월 얼마(보통 3천~5만)를 내겠다고 약정한다. <편집자 주>) 실적도 기재한다. 또한 세례, 견진, 혼인에 관해 교구, 본당, 연월일, 번호 기재가 정확해야 하고,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되므로 적어도 생일 부분은 누락이 없도록 주의시키고 있다.

전출 교적을 받은 본당에서는 「전입 대장」에 기재한 후 전입번호, 전입 일자 를 받은 교적에 기재한다. 전입 교적은 반드시 주임사제의 확인을 받고, 본교적을 작성한다. 전입 교적이 도착했으나 본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전입 미정리 교적철」에 보관 처리한다.

교적 처리와 관계되는 대장은 △전입 교적 대장 △전출 교적대장 △새 교적 작성 대장 △입적 미정리 교적 대장 △냉담자 및 행불자 교적 대장 등이 있다. 교적은 본당에서만 보관할 뿐 교구청에서는 관리하지 않는다. 아울러 본당에서는 교적뿐 아니라 세례대장을 비롯한 모든 성사대장을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교구청에는 「교구청 제출용 성사대장」만을 작성하여 우송하고, 교구청에서는 이것만 보관한다.

기타 서식으로는 본당별로 「예비자 신상카드」나 「교무금 통장」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해 사용하고 있는데, 「예비자 신상카드」는 말 그대로 아직 세례받지 않은 예비신자들의 신상 파악을 위해 작성케 하고 있

다. 예비자 카드가 왜 필요한가 하면 성사생활에 장애가 되는 조건들이 있는가를 파악, 세례받기 전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예비자 신상 카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결혼 유무, 직업, 최종 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예비자 신상카드의 기재 사항은 본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한국 천주교 통계 집계

한국 천주교회는 교세 현황을 매년 통계자료로 집계 해왔다. 지난 해부터 새로운 교세 통계 양식을 도입, 1994년도 교세 통계부터 새 양식에 따라 조사, 보고하고 있다. 새 교세 통계표는 지금까지 조사돼 왔던 신자 증감율과 성사 여부를 보다 세분화하고 수도자와 교구 단체별 활동 및 신자들의 영성 생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총 60쪽에 달하는 양식을 새롭게 했다.

새 교세 통계표는 또한 앞으로 시행될 가톨릭 종합 전산망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표준화한 양식으로 전국 모든 교구에서 교세 현황을 파악할 때 이 양식에 준해 조사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통계는 2개 항목의 개황과 11개 항목의 통계로 구분된다. 개황에는 교구별 관할 지역과 면적, 인구, 신자, 성직자, 본당, 공소, 수도회, 대신 학생, 전교사, 교리교사 현황이 명시되어 있다.

통계로는 △신자 총수, 증감 △신자 남녀구분, 증감 △신자 연령별 구분 증감 △교구별 성직자 증감 현황 △교구별 성직자 사목활동 현황 △교황청 설립 수도회 회원 현황 △교황청 설립 수도회 교구별 현황 △교황청 설립 수도회 교구 선교사목 종사자 현황 △교황청 설립 수도회 단체별 현황 △교구 설립 수도회 교구 선교사목 종사자 현황 △교구 설립 수도회 단체별 현황 △재속회, 사도생활단(평신도이

면서 수도생활을 허위한 사람) 회원 현황 △재속회 사도생활단 교구별 현황 △재속회 사도생활단 교구 선교사목 종사자 현황 △재속회 사도생활단 단체별 현황 △세례성사 현황 △견진, 병자, 첫영성체, 영성체, 고해성사, 냉담자, 주일미사 참여자 현황 △성사 혼, 관면혼, 단순 유효화혼, 관면혼율, 사망추정 신고, 혼인무효 판결, 혼인강좌 이수자 현황 △신심단체 이수자 현황 △신자 재교육 기관 및 강좌 현황 △가톨릭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수 및 학생수, 신자학생 남녀별 현황 △가톨릭계 교육재단 교사 및 교수 중 성직자, 수도자, 신자·미신자 현황 △교구별 가톨릭계 특수학교 학교수 및 학생수 현황 △교구별 주일학교 초·중·고등부 남녀 학생수 및 교사 현황 △의료사업 현황 및 종사자, 치료환자, 시설 현황 △사회사업 시설 현황 △가톨릭계 출판사업 교구별 현황 △해외 교포사목 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다.

### 한국 천주교 行政情報化 현황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산하에 2천년대 가톨릭 복음화 사업 지원 작업의 일환으로 「가톨릭 전산원」을 설치, 지난 해부터 일명 <모세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20여 억원을 투자해 가톨릭 종합 전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 사무 자동화 개념에서 탈피, 가톨릭 교회 종합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취지 아래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전체 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종합 정보화 추진 계획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과정으로 전국 교구 및 본당 사무행정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2단계로는 “표준화 시스템 구축” 단계로 교구 및 본당별 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교구간의 신속한 업무 처리와 시스템 운영자나 사용자간의 편리하고 용이

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가톨릭 정보인프라 (Infra) 구축과 가톨릭 통합 전산망 운영계획을 확립하여 통합 가톨릭 정보센터 기능을 갖출 방침이다.

3단계로 “통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운용” 단계로 전국 교구와 본당, 교회내 각 기관단체와 교육재단,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수도회 등을 잇는 통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정보 공유화와 상호 호환성을 꾀하여 사목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공유할 방침이다.

가톨릭 전산원은 또한 신자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가톨릭 종합 전산망을 개방, 가톨릭 교회에 관한 신자들과 일반인들의 정보 이용을 극대화하여 교회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고양시켜 나갈 계획이다.

### 교회 행정의 정보화의 필요성

가톨릭계 관계자들 중 상당수는 앞으로 교회의 개방성과 정보화 여부가 복음화의 지표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교회만이 안주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교회 정보화는 교계 지도자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정보화에 따른 조직 개편과 제도 개선, 행정 업무의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화의 관건은 교구와 본당 업무의 표준화 작업을 얼마나 앞당기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그 첫 작업으로 교세 통계 양식을 전면 개혁하여 표준화했고, 교적을 비롯한 모든 성사대장 서식을 통일했다. 심지어 이런 양식은 천주교중앙협의회가 제작, 판매하는 양식서만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다른 어느 종교와 종파보다 전산화, 정보화 작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세계는 물론 한국 사회만 해도 최근 위성시대이니 디지털 방식이니 정보 주도형 사회로 환경이 바뀌고 있다. 사회 환경의 변화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함께 변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사회 구조 및 환경 변화의 분석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아울러 능률적인 선교활동을 위해서 현대 교회의 정보화 작업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 법회와실법

## 특 집

# 종단 信徒管理 改善方案을 위한 제언

김응철 / 중앙승가대 교수

### 신도관리의 필요성

불교에서 信徒管理란 “일반인들이 불교에 입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육바라밀을 행하여 사회와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고 궁극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타 종교와 달리 스스로 수행하고 탐마하여 부처님이 설하신 지혜를 체득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도관리라는 말이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종교사회적인 이유로 신도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불교는 출가하여 수행에만 전념하는 승가와 일상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재가로 구분되어 있다. 승가는 하나의 사상과 수행의 공동체로서 엄격한 규칙과 질서를 바탕으로 생활하는데 반하여 재가불자들은 승가, 즉 스님들의 지도와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왔다. 그런데 승가의 조직적인 수행 생활에 비하여 재가자들은 조직적인 신앙체계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극적인 신도관리는 우리사회가 본격적인 사회가 다종교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종교의 영역을 독

점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독자적인 지위는 해방 이후 급격히 들어온 외래 종교에 의하여 위협받기 시작하였다. 이들 서구의 외래종교들은 이제 교세의 확장은 물론이고 교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로 성장하였다. 불교는 이와같은 여러 종교의 경쟁 속에서도 다수 종교의 지위는 지금껏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상태이다.

그것은 현재의 종교인구 분포와 그 변화 추이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다. 현대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나아가면서 선진국의 일반적인 종교 현상은 종교행위 참여의 감소와 무종교인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종교인구 통계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던 종교인구는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종교인구의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종교가 불교이다.

통계청의 조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1991년의 종교인구는 전체 국민의 54%가 불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하여 1994년의 조사에서는 49.9%로 나타났다. 즉 약 4년만에 종교인구가 4.1%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종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교’는 3.2%, ‘유교’ 0.6%, ‘기

독교' 0.4%가 감소한 반면에 '천주교'는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의 종교인구 분포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2~30년내에 불교가 소수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95년 현재 종교인구 분포를 자세히 분석하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청소년 종교인구 중에서 불자청소년의 비율은 약 22%인데 비하여 타종교 청소년의 비율은 총 70%가 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이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될 때면 결국 우리 나라의 종교인구 분포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불교는 지금까지의 신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도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신도관리 체계를 점검해 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신도관리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신도관리의 체계

신도관리는 신도의 입문에서부터 신행활동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다. 신도관리 과정은 입교, 교육, 수계, 신행생활과 포교 활동 참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난다.

신도의 입문은 한 개인이 불자가 되기 위하여 사찰을 방문하여 신도등록을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한 개인이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적 발심을 하거나 외적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내적 발심을 통한 자발적 신도 입문을 기대하는 것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안일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신도 교육에는 단위사찰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리 교육과 사찰 예절 및 전통 습의 교육 등이 포

함된다. 현재 대부분의 사찰에서의 신도교육은 기도와 정기 법회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신도가 서서히 체득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사찰에서는 매년 기초교리 강좌를 통하여 정기적인 신도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신도교육은 입교시기, 연령, 관심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계는 삼귀의계, 오계, 보살계 등을 신도들이 수지하는 과정이다. 신도들에게 수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수계법회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계 법회의 형식과 내용이 종단 차원에서 표준화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신도 수계는 단위 사찰에서 임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통과 경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

계를 수지한 신도는 스스로 신행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신도들의 신행활동은 예불, 기도, 염불, 참선 등 여러 가지를 근기와 여건에 맞추어 할 수 있다. 많은 신행활동을 통하여 신도로서의 기본적인 위의를 갖추고, 근본 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포교활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포교에 소극적이며, 가족들에게 조차 불교를 이해시키고 포교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신도관리 과정은 주로 단위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단위 사찰은 본사급의 대규모 사찰에서부터 스님 한 분만 거주하는 포교당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사찰의 주된 역할도 관광사찰, 기도사찰, 교육사찰, 수행사찰, 포교사찰 등 매우 다양하게 나뉘어진다. 이러한 사찰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신도관리의 방법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신도관리의 문제점

사찰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문제점 들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신도관리는 기도와 축원 등을 위하여 작성되는 축원카드 중심의 신도관리가 주된 방법이었다. 축원카드에는 신도의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매우 일반적인 사항들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도관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축원카드에는 신도들의 애로사항이나 희망사항 등 뿐만 아니라 신행활동 및 수계 사항 등 신도관리에 필요한 보다 자세한 기록들이 있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불교에서의 신도관리는 세대주 중심의 가족 관리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다종교 사회에서 가족별 혹은 세대주별 관리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이질적인 종교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제는 세대주별 관리와 개인별 관리를 병행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카드에는 개인의 불교 교육과 수계 상황, 신행활동 및 포교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도관리는 대부분 축원카드를 손으로 정리하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축원카드를 정리하는 방법은 거주지 별 혹은 세대주 명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축원시 카드를 사용하는 정도이다. 우편물을 보내려고 한다면 주소를 모두 봉투에 옮겨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대부분의 사찰에서 연간 두세 번 정도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와서는 신도관리의 전산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산관리의 경우도 우편물을 발송하는 라벨 작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신도관리는 단위 사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신도관리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단위사찰별 신도관리의 장점은 해당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신도관리에 임할 수 있으며, 신도의 변경 사항을 바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신도관리에 소극적인 사찰에서는 수십년전에 작성한 뒤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신도카드가 그대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법회에 자주 참석하는 신도들만을 집중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단위사찰별 신도관리의 단점은 교구 본사나 중앙종무기관에서 전혀 신도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데 있다. 또한 이중 삼중의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로 인하여 신도 수가 과장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신도관리의 문제점은 신도관리 전문가들이 없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단위사찰에는 종무원들이 있지만 효율적인 신도관리를 위한 전문성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주지스님들이 직접 인간관계에 기초한 신도관리를 하는 반면에 그 범위가 좁고 개인적 관리의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단위 사찰의 신도관리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인간관계에서 공적이고 체계적인 인간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신도를 관리할 수 있는 종무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신도관리의 방향

종단 신도관리의 쇄신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도관리를 위한 내적 외적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내적 환경은 단위사찰의 신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고 외적 환경은 교구 본사 및 총무원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종단의 신도관리는 사실상 단위 사찰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단위 사찰의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의 역량과 방법에 따라서 신도관리의 수준이 달라졌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신도관리를 하는 사찰이 있는가 하면, 거의 관리 활동 없이 찾아오는 신도들에 의존하는 사찰도 많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체계적인 신도관리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도의 입교에서부터 교육과 수계에 이르기 까지 종단에서 단일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수계과정을 거쳤을 때 신도증을 발급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의 신도 등록은 사찰에 등록 신청을 하고 소정의 수수료만을 납부하면 모두 신도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는 숫자 상의 허수 만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심 있는 불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정한 소정의 교육과 수계과정을 거친 신도만을 대상으로 신도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신도관리의 또다른 방향은 총무원과 교구본사 및 단위 사찰이 상호 협력 하에 신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 사찰에서는 신도의 개인 사항을 관리하고 교구 본사에서는 교구 지역에서 필요한 신도관리를 하고 총무원에서는 전국단위에서 필요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天理教에서는 전세계 300만 명의 신도 인명록을 전산화시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천리교 본당에서 관리하는 신도는 전체 신도가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단에서도 포교원이 전국의 모든 신도를 모두 전산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연간 20%가 넘는 인구이동에서 기인한다. 잦은 인구이동으로 주소 변동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 상황을 모두 전산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따라서 포교원에서는 단위 사찰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신도활동을 하는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신도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예컨대 신도회 소임자, 사찰 관리나 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신도 등 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신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도관리

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산 관리에서는 세대별 관리 보다는 개인별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한 집안에서도 종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축원카드와 신도카드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축원카드는 단위 사찰에서 관리하고 신도카드는 단위사찰 및 교구본사에서 전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신도의 전산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신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각 사찰에서는 다양한 컴퓨터 기종에 맞추어 수십 종류의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위 사찰과 교구본사 및 중앙 사이에 원활한 전산관리가 이루어지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상호 데이터 교환이 자유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년동일한 포맷을 가진 프로그램의 보급은 필수적이다.

신도관리는 기존 신도를 기술적으로 '管理' 한다는 시각 만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의 신도 외에 새로운 신도를 발굴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들의 연령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는 다양한 법회를 통한 질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불자의 확보를 위해서는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가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법회를 통하여 신도교육과 포교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신도관리가 가능해진다. 신도들이 사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 도심의 포교당에서는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영역별로 각종 법회와 행사를 병행하면서 새로운 신도들을 확보하는 경우도 눈에 띄고 있다.

이제는 불교적 정서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불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에 참여하는 불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신도관리 방법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법회와설법**

## 9월호 특집안내

### ● 큰주제 : 청년 포교의 현황과 과제

- 청년회의 현황과 의식조사 보고
- 청년회의 활성화 방안
  -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사찰의 과제
- 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종단의 과제
- 대불청 운동의 방향과 과제
- YMCA 연구 보고